

군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근대문화 관광벨트 조성 현지생산 체험식당 관광 · 지역 특산물 판매 예정

군산(시장 김임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원도 심과 외곽 지역을 잇는 근대문화 관광벨트 조성 역할을 북돋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군산시에 따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 인구유지 및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총 585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난해까지 270억을 투자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08년 사업을 시작해 육구읍 개장면을 완료하고 임피 성산 옥산 대야 화현, 서수면을 대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포면과 옥서면은 올해 공모 사업을 신청 중에 있다. 이중 2018년 말 사업을 완료한 개장면 발전사업 종합정비 사업으로 인해

시마타니 금고(국가등록문화재 제182호)와 최호장군 유지, 진남정 국공할터 등을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관람·체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장면 발전사업센터 안에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체험식당인 엄니밥집에서는 매일 현지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식단을 맛볼 수 있어 관람과 체험이 더해진 새로운 관광 명소가 발돋움하고 있다. 발전사업에 이어 추진되고 있는 대야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과거 숲을 만들던 근대 건축물 양식의 대야 주조장을 등록 문화재로 등록하고 체험형 전시공간인 '추억뜨락'으로 조성해

근대유물 전시, 추억카페 등 방문객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특산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원도심과 임피 간 이역을 잇는 관광벨트가 구축되면 관광광객이 군산시 전역의 근대역사문화를 탐방할 수 있게 돼 명실상부한 관광 명소가 거듭날 것"이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방문객에게 새로운 체험공간을 제공해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서기관급 승진내정 인사 단행

4급 서기관급 2명 · 5급 사무관 9명

익산시가 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4급 서기관급 2명과 5급 사무관 9명 등 모두 11명의 승진자 내정인사를 단행했다. 4급 서기관 승진 내정자는 유창숙 복지청소년과장과 조창규 기획예산과장 등이며 5급 승진 내정자는 행정직 △김민선(투자유치과) △김우진(문화관광과) △박철영(행정지원과) △변명숙(복지청소년과) △송민규(행정지원과) △이양재(투자유치과) 계 5명, 정년 2년을 앞두고 6월달로 명예 퇴직한 합열출장소 소장직 소장(건축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이날 국장급 전보 인사도 단행, 이상춘 국장을 문화산업국장으로, 김주일 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최양욱 국장을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김주일 국장을 전보조지 단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전보조지 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자 서기관급 △안택근 시의회 사무국장(행정직) △최광석 건설교통국장(건축직) △진선섭 농업기술센터장(농촌지도관) 등 3명과 사무관급으로는 △신찬탄 세무과장 △박영호 위생과장 △박태진 신동장 △강은옥 동산동장 △김갑근 황등면장 등 행정직 5명, 정년 2년을 앞두고 6월달로 명예 퇴직한 합열출장소 소장직 소장(건축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이날 국장급 전보 인사도 단행, 이상춘 국장을 문화산업국장으로, 김주일 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최양욱 국장을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김주일 국장을 전보조지 단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전보조지 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지역 내 중소기업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 협약

군산(시장 김임준)은 지역 내 한국GM 및 현대중공업 중소기업 협력업체의 신규 수주물량을 지원하기 위해 9일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사)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군산조선회의회, 군산지동자협의회가 함께한 이번 협약 체결로 부도 위기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이 부평, 창원, 울산 등에서 신규 물량을 수주했을 경우 최대 50%까지 물류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규선 산단경영자협의회장은 "이번 지원은 현재까지 정부에서 지원된 그 어떤 사업보다도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지원"이라며 "이번 사업을 적극 검토해 지원해 주신 김임준 군산시장님께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도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조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신청 받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 및 절차 등에서는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자립도시 군산 만들기 최선”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 취임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이 취임 후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승복 부시장은 1979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군산시 구암동장, 건축과장, 전라북도 토지주택과장, 규제개혁추진단장, 안전정책관, 김제시 부시장, 환경녹지국장 등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로 공무원기술사회 전북도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안전정책관 재직 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근정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부시장은 “산적한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식 등을 생략하고 업무에 돌입했다”며 “GM공장 폐쇄 등과 관련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시민과의 소통, 공직

자들의 열정과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과 가깝게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취임해 업무과파에 나선 이승복 부시장은 9일 시의회 및 관내 기관방문을 시작으로 소통행정에 나섰다. 직원들과도 시정현안을 포함한 공직문화 개선 등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공직자 역량강화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으며 소통 행정을 펼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혼인신고 포토존 새단장

익산시가 지난해부터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설치,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설치된 포토존은 미륵사지석탑과 왕궁리층석탑과 함께 익산시 상징 캐릭터인 서동선화 얼굴을 신혼부부의 얼굴을 넣어 꾸며졌다. 또한 혼인신고 문구와 이미지를 배경으로 둔 포토존에 익산의 새 서동선화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는 메시지를 더했다. 현재 익산시는 종합민원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 주고 즉석사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하지 못한 부부도 재방문 시 제공받을 수 있다. /익산=우병희기자

포토존은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서비스로 신혼부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427쌍의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촬영서비스를 이용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은 "익산만의 특징이 담겨있는 신선한 혜택과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기분 좋은 하루를 선물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가족클래식극 '무민의 특별한 보물' 영유아 공연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는 25일 문화가 있는 날에 가족클래식극인 '무민의 특별한 보물' 공연이 센터 더함홀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재)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문 클래식 색소폰 연주단체인 노비예술단이 방문하는데, 음악성과 테크닉을 고루 겸비한 젊은 색소포니스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색소폰 4중주로 편곡된 '사랑의 인사, 로망스, 녹턴' 등 과 같은 친숙한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우병희기자

또한 핀란드 동화 무민 그림 동화 시리즈 1권인 무민의 특별한 보물을 각색한 공연으로 아이들의 무민 동화속 다양한 캐릭터들과 함께 호호하며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고, 숨비꼭질놀이, 지휘체형 등을 제공한다. 공연은 24개월 이상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현재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접수 중에 있다. 한편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7~8월(2,4주) 금요일마다 아와가족극장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사전예약 없이 참여 가능하며 간단한 간식, 돗자리 등을 지참해 방문하여 관람가능하고 애니메이션은 SING 모아나가 상영될 예정이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신청사 건립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익산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가 9일 익산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용역을 수행하는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익산시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익산시와 함께 익산시의회, LH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국가공모사업인 노후공공건축물 리

뉴얼사업으로 추진되는 익산 신청사 건립은 지난 2017년 12월 22일 공모사업에 선정,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그간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토론회 개최, 시민 및 직원 설문조사 등 시민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견수렴을 추진해왔다. 이날 중간보고는 지난 3월 28일 착수보고회에 이어 검토된 청사의 기본

규모 등과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사례 등에 대해 발표하였고, 시 의회 및 LH 등 참석자들은 주민편의시설 및 주차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익산시는 이날 정점화 된 주요 내용에 대해 앞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며,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청사에 대한 윤곽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중간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이 함께하는 청사를 신축하겠다"며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사를 건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